



마산 고려병원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 로비에 조각된 십장생 조각



朴 泰 壽 병원장

병원연혁

- 81. 3. 11 개원 및 개설허가 (16개과, 2백병상)
- 3. 16 수련병원지정 (인턴, 레지던트)
- 4. 15 4 백병상 증설허가
- 82. 12. 30 간호원기숙사 준공
- 83. 3. 1 전병동 가동 (4 백병상)
- 85. 9. 1 업무전산화
- 12. 7 홀바디 C T 설치가동
- 86. 3. 1 감마카메라 설치가동
- 3. 1 인공신장실 개설
- 5. 28 심장센터 개설



▲ 환자 상담실

경남일대에 최대의 규모와 시설 자랑

팔룡산의 푸른 숲을 배경으로 시내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산시 합정 2동 50번지에 자리 잡고 있는 고려병원 (원장 · 朴泰壽).

부산을 제외한 경남 일대에선 최대의 병동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마산고려병원은 이제 진료지역권인 마산·창원·진해뿐 아니라 멀리 울산을 포함한 경남북의 27개 시·도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명실상부 인술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 병원이 개원식을 갖고 환자진료를 시작한 것은 지난 81년 3월 5일.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의료요원의 양성 그리고 의료시혜사업을 확대 전개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취지 아래 지난 79년 4월 28일 보사부로부터 공단지역 및 의료취약지구 병원시설자금 지원금을 받고 또 자체자금을 투입, 기공식을 가진후 2년여의 공사끝에 마침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주위 조경 아름다와 병원의 자랑거리

개원당시 이 병원은 16개 임상과를 둔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2백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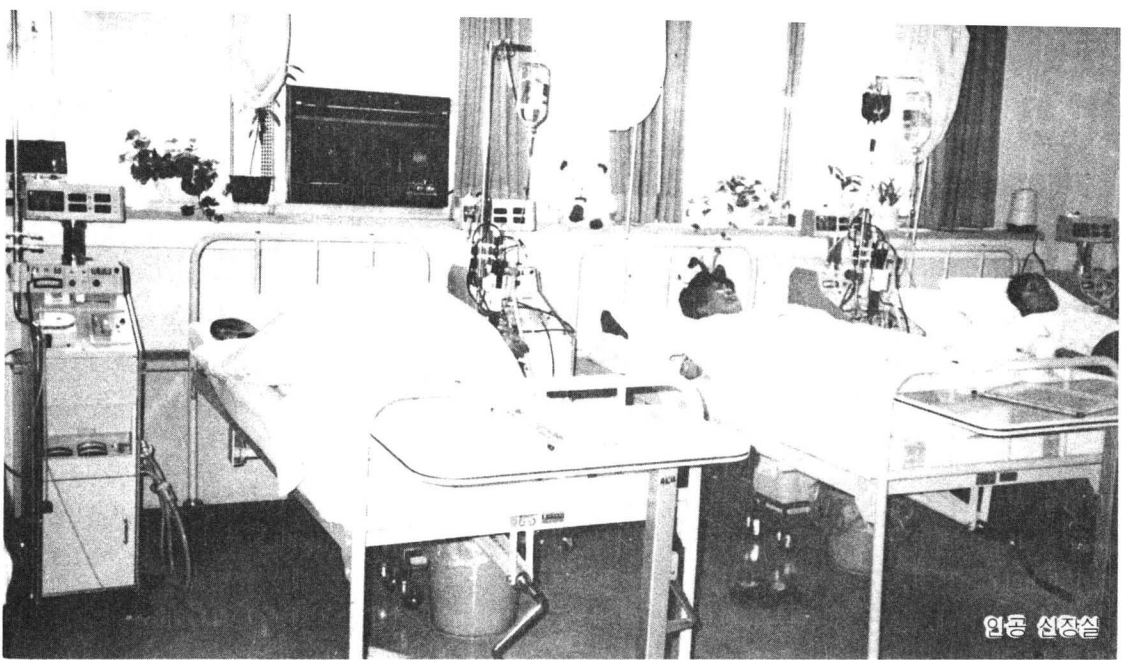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환자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 그해 4월 15일 당국에 2백병상의 추가증설을 요청, 인가를 받고 이어 83년 3월 1일부터 전병동을 풀가동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병원의 규모는 대지 1만 8백70평에 △관리부서 2백82평 △외래부서 9백15평 △병동부서 1천 6백17평 △중양진료부서 7백3평 △부속부서 3백41평 △기타 1천 4백99평등 전체 건평이 5천 3백57평에 이른다.

특히 이 병원 직원들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병원건물을 둘러싼 넓직한 정원과 주위의 조경이다.

전산 시스템 ▶





복지후생시설 설치, 직원의 사기진작

지상 8층 규모의 흰색병동의 중후함을 한결 돋보이게 하는 팔룡산의 푸른숲을 제외하고라도 모과나무, 감나무를 비롯한 온갖 화초와 잔디 그리고 조형물로 장식된 정원은 단순히 환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기 보다 차라리 마산시민들의 공원이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만큼 보논이의 눈길을 끈다. 실제 이 정원에는 병원주위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함으로써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 병원은 또 정원 한편에 헬리포트를 설치, 인근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긴급후송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병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체 종사자는 전문의 38명, 레지던트 35명, 인턴 20명, 치과의사 1명등 의료직 94명을 비롯해 △간호직 2백49명 △약무직 19명 △의료기사 62명 △행정직 75명 △사서직 1명 △보건직 5명 △기술직 및 기능직 21명 △고용직 65명 △기타 5명등 모두 5백 87명(정원 5백 92명)이다.

이들 종사자 가운데 자격증소지자는 모두 4백16명으로 면허소지율이 71%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면허소지자는 물론 자격증이 없는 직원들도 모두 정규직원으로 채용, 업무를 맡기고 있다.

환자들에 대한 친절의 생활화

이는 일부 직종인에게 임시직을 주어 활용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병원은 이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가지 복지후생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의사와 전공의들의 숙소와 1백명을 수용하는 간호원기숙사를 비롯해 야간경기도 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 여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1백평 규모의 온실, 마을금고와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공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등산·낚시·볼링·사진등 원내 7개 취미클럽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병원은 전직원들에게 CT촬영과 약투약에 따른 비용 이외의 외래진료비 전액을 감액해 주고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간부직을 제외한 전직원의 자녀(중·고교생) 2명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후생복지시책은 병원에 대한 종사자들의 애착심을 높여 업무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을뿐 아니라 「환자들에 대한 친절의 생활화」라는 병원시책이 큰 실효를 거두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 제공

이 병원은 환자에 대한 친절 및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 간부직원들이 순번제로 근무하는 상담실과 규모가 큰 ICU보호자대기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원내감염방지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1회용 컵과 크리넥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 병원은 전신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감마카메라, 인공신장기를 비롯한 각종 최신의료장비



▲ 전신용 CT

를 갖추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5년 12월 설치된 전신용전산화 단층촬영장치는 일본 히다찌에서 제작한 최신장비 (CT-W4)로서 이 병원 진료지역권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환자들의 정밀진단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촬영건수는 8회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하루 평균 15명의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인공신장실은 환자들이 이 병원설립 전까지만 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불편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매우 크다.

美 굿사마리탄병원과 자매결연 맺어 심장센터 설립

이들 시설외에도 마산고려병원은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지난 85년 9월 용량이 2메가바이트인 컴퓨터 (HP-3000)와 4백 4메가바이트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도입 설치하여 현재 외래·입퇴원·급여·보험·재고·약국·고정자산·미수금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2메가바이트의 컴퓨터와 4백 4메가바이트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추가로 설치하여 회계 및 의무기록 업무의 전산화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28일,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굿 사마리탄병원의 지원으로 경남일원에선 처음으로 설립된 심장센터는 센터설립이후 1년만에 개심수술을 1백례 시행했고 그에 따른 수술성공률이 94%라는 매우 좋은 성적을 보였다.

한편 이 병원 朴泰壽원장은 『병원설립 목적에 따라 그동안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렇듯 양질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보니 병원경영은 매우 어려웠다』고 말한다.

의료보장환자 비율높아 흑자경영 어려워

박원장에 따르면 전체 외래환자들 가운데 △보험환자 70% △보호환자 12% △산재환자 3%로 의료보장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이르고 입원환자의 경우도 보험 (55%) 보호 (14%) 산재 (8%) 환자의 비율이 77%나 돼 병원의 흑자경영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 다만 금년 들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함으로써 개원6년만에 처음으로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박원장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금년 8월말 현재 재정을 손익분기점까지 끌어올렸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행 진료수가의 개선없이 오는 88년 농어촌의료보험이 실시된다면 우리 병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병원들이 적자경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